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을 중심으로 -

임결*

본 연구는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찾고, 대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주간 직접면접과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631케이스를 sps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속적 사회적자본에서는 신뢰, 관계망, 가족, 또래친구, 교사요인에서 유의하였고, 교량적 사회적자본에서는 규모, 밀도 모두가 유의하였다. 결속적 사회적자본은 타인과의 관계성을 통해 학교 적응력이 높고, 교량적 사회적자본은 청소년이 보유한 자원의 규모와 밀도의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언하자면 첫째, 관계성의 중심으로 하는 결속적 사회적자본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필요한 관계정도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교량적 사회적자본인 규모와 밀도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팬데믹, 청소년, 결속적 사회적자본, 교량적 사회적자본, 학교적응

논문 투고일: 2024. 4. 5.

최종심사일: 2024. 5. 24.

게재확정일: 2024. 6. 17.

* 송원대학교 사회서비스융합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Lim, Gull, Songam-ro 73, Nam-gu, Gwangju Metropolitan, Korea. 61756.

E-Mail : lgull@hanmail.net

I. 서론

팬데믹(pandemic)시기를 경험한 청소년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낯설음과 팬데믹이 삶과 함께(with)라는 인식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며 학교 등교 축소와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 제한 등의 사회적 관계 축소가 일상화 되었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부정적 사고,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학교적응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커져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 제한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임걸, 2024). 그리고 이시기의 청소년은 그들이 누려야 하는 교육, 문화 생활, 여가활동 등의 제한으로 인해 삶에 대한 부정적 사고 증가와 학교적응에 있어 부적응적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또래친구와의 만남 제한, 학업성취 부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적 문제는 여전히 팬데믹을 경험하기 이전으로의 회귀가 어렵다(장은지, 김민석, 2022).

통계청(2021)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자살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행복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청소년의 자살율을 낮추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지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Berkman. et. al(2014)은 위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사회적자본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지현·한경혜(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사회적자본이 많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Granovetter(1995)는 교량적 사회적자본인 밀도(density)가 5 이상일 때 관계성이 높아지고, 5이하일 때 관계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자본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이지현·한경혜, 2012). 김주연(2017)도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가지는 역할을 통해 청소년의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주장하였다. 유창민(2018)은 사회적자본의 정의에 대해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관계성, 밀도, 규모’에 따라 청소년들의 부적응적 문제에 대한 예방과 문제행동, 스트레스를 감소 시켜주며, 개인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의 긍정적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말한다(유창민, 2018; Yoo, 2018).

많은 선행연구에서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Coleman(1995)이 주장하는 사회적자본의 하위유형인 결속적 사회적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적 사회적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결속적 사회적자본은 관계성이 매우 밀접하고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친밀함을 가족, 친구, 이웃, 친척 등과 같은 깊은 관계성이라고 하였고, 교량적 사회적자본은 약한 관계이지만 넓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규모(size)와 밀도(density)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Putnam, 2000). Woolkock & Narayan(2000)은 결속적 사회적자본과 교량적 사회적자본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과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 중에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에 대해 개념적 접근을 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에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 중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팬데믹(Pandemic)이란 ‘감염병이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Pandemic’은 ‘모두’를 뜻하는 ‘Pan’과 ‘사람’을 뜻하는 ‘demic’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2대륙 이상의 국

가에서 감염병 또는 전염병이 모두에게 퍼진 상태'라고 정의한다(WHO, 2020).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감염병으로는 세계 최고 경고 등급으로 인류 역사상 팬데믹에 속한 질병은 코로나 19가 창궐하기 이전까지 3차례 밖에 없었다. 14세기 중세 유럽의 '페스트(흑사병)', 1918년 '스페인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이후 4번째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규정지었다(WHO, 2020).

이러한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은 가상 사이버 공간의 게임을 즐기며, 유행에 민감한 소비 활동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관계망(SNS)를 통해 실시간 채팅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며, 수시로 변화하는 유행에 발맞추어 외모를 치장하는데 자신의 용돈을 아낌없이 소비한다. 또한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은 대중문화 특히 K-Pop,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의상을 즐겨입는다. 그래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새롭게 사고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세대라고 한다(강인경·김춘경, 2016). 이렇게 자유롭고 인터넷 활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은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청소년의 능력에 따라 학습 성취의 격차는 커졌으며, 학교 부적응적 문제는 커져가고 있다(장은지·최재성, 2021).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의 강화는 중요하다.

2. 사회적 자본

사회적자본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Granovetter(1995)에 따르면 사회적자본을 '상호면식, 네트워크 등 서로의 제도화된 관계로서 관계의 정도에 따라 획득되고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였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자본이 소속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기회 자원이라 정리하였다(Bourdieu, 1986; Granovetter, 1995; Coleman, 1995; Putnam, 1995, 2000; 임걸, 2024).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에 대한 개념 중 청소년의 사회적자본, 그리고 사회적자본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콜만의 결속적 사회적자본과 교량적 사회적자본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1>에 학자별 사회적 자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1> 학자별 사회적자본 정의

구분	사회적자본 정의
Bourdieu (1986)	상호 면식, 네트워크 등 서로의 제도화된 관계로서 관계의 정도에 따라 획득되고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였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자본이 소속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기회 자원이라 한다.
Coleman (1995)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관계, 구조 또는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Putnam (1995, 2000)	사회자본의 종류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참여) 등으로 정의된다. 2000년 이후 사회자본은 관계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결속형, 연결형 사회자본으로 구분한다.
Tisencorpfs (2008)	그룹이나 조직의 공통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협력이 허용된 그룹의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특정 비공식적 가치 또는 규범 세트라 정의한다.
Granpvetter (1995)	사회구조나 제도적 환경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관계적 효과는 사회적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로 구분하여 관계성으로 정의한다.

1)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

Putnam은 사회적자본을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관계망, 규범, 사회적 신뢰’라고 하였으며, 이후 관계성을 기반으로 동일 집단, 소속을 기준으로 결속적 사회적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적 사회적자본(Bridge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다(Putnam, 1995, 2000; 김영미, 2008; 유창민, 2018). 즉, 결속적 사회적자본은 행위자와 타자의 상호관계에 있어 이익을 위한 깊은 관계성과 신뢰성에 초점을 두고 관계가 긴밀하며, 정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과 같은 밀접한 관계성이라 하였다(Putnam, 1995, 2000; 김영미, 2008; 유창민, 2018). 반면 교량적 사회적자본은 약한 유대관계이지만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새로운 시각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를 사회적자본이라 하였다(Holland, et, al., 2007; Yoo, 2018, Granovetter, 1995; 이정규, 2000; Helliwell & Putnam, 2004). Tisencopfs, Lace & Mierina(2008)도 사회적자본을 관계의 정도에 따라 결속적 사회적자본은 가족, 지역사회, 종교조직 등과 같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보았으며, 교량적 사회적자본은 가족보다는 멀고 약하지만 보다 횡적인 관계적 특징으로 구분하였다. Woolcock & Narayan(2000)은 결속적 사회적자본을 목적달성 행위의 수행(to get by)으로 교량적 사회적자본은 행위자의 목적달성(to get ahead)을 쉽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Granovetter(1995)는 강한 유대관계(strength tie)를 갖는 결속적 사회적자본과 약한 유대관

계(weak tie)를 갖는 교량적 사회적자본으로 규정하였다. 즉, 결속적 사회적자본은 유대관계의 밀도가 높고, 상호 간 높은 신뢰감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다. 하지만 관계의 수는 작고, 소수여서 주로 비슷한 질과 종류의 정보, 이득은 낮은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교량적 사회적자본은 약한 유대관계이지만 많은 관계망을 가지는 특징과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획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관계성의 유대관계는 낮고, 구성원 간의 조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이정규, 2000; 이가영·김신영, 2009).

2) 청소년과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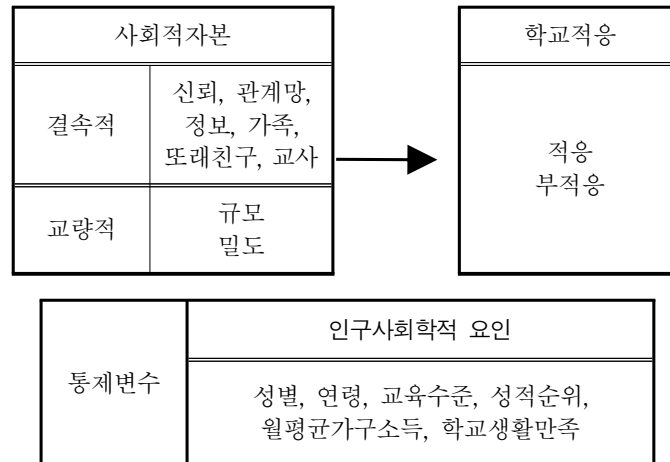
청소년은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특히 이 시기의 청소년에게 환경은 적응과 부적응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때의 청소년들은 환경 적응에 매우 민감하기에 Coleman(1995)이 주장한 사회적자본의 하위유형인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서지원(2006)에 의하면 가족내 사회적자본은 청소년의 진로, 결속력, 가족구조 등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고, 김민석·장은지(2002)는 가족외 사회적자본으로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라고 하였다(Coleman, 1995, 장은지·김민석, 2022). Catalano(2004)는 청소년기에 사회적자본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문제행동 예방과 긍정적인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6년간의 종단 연구를 한 유(Yoo, 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또래, 교사와의 관계에서 결속적 사회적자본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는 청소년들의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수준에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이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청소년의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은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과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11월 06일부터 ~ 11월 24일까지 3주간 조사하였다. 총 647부를 배부하여 635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에 문제가 있거나 자료가 누락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631케이스의 데이터를 spss 28.0로 분석하였다(김갑순 · 김승옥, 2023; 홍혜정, 2023, 박지혜 · 도미향, 2023).

2.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결속적 사회적자본과 교량적 사회적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로는 학교적응, 독립변수는 결속적 사회적자본, 교량적 사회적자본, 통제 요인은 성별, 연령, 부모교육수준, 성적, 월평균가구소득, 학교생활만족을 살펴보았다.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표-2>에 제시되었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측정
종속변수	학교적응	적응/부적응
독립변수	결속적 사회적자본	신뢰
		관계망
		정보
		가족
		또래친구
		교사
	교량적 사회적자본	규모
		밀도
통제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부)
		교육수준 (모)
		성적
		월평균 가구소득
		학교생활만족

그리고 설문 내용 중 독립변수인 결속적 사회적자본과 교량적 사회적자본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유창민(2018), 임걸(2013)의 연구에서 검증된 설문 내용을 재구성하여 구성 및 내용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살펴본 결과 설문내용의 구성 및 내용타당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검사결과는<표 3>과 같이 조사되었다. 결속적 사회적자본의 신뢰도는 신뢰 .872, 관계망 .864, 정보 .827, 가족 .889, 또래친구 .897, 교사 .892으로 교량적 사회적자본은 규모 .914, 밀도, .912로 분석되었다.

<표 3>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 신뢰도

구분	변수	신뢰도	문항
결속적 사회적자본	신뢰	.872	5
	관계망	.864	5
	정보	.827	3
	가족	.889	5
	또래친구	.897	5
	교사	.892	5
교량적 사회적자본	규모	.914	1
	밀도	.912	1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로 전환하기 위해 SPSS 2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한 청소년의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넷째,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청소년의 결속적, 교량적 사회적자본을 중심으로 로짓회귀분석(logit-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성이 352명 55.8%, 여성이 279명 44.2%로 조사되었고, 연령은 17세 167명 26.5%, 18세 254명 40.2%, 19세 210명 33.3%로 조사되었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대학교 272명 46.2%, 고등학교 178명 30.2%, 전문대 49명 8.3%, 대학교 이상,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241명 41.2%, 대학교 231명 39.5%, 전문대 52명 8.9%, 대학교 이상,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이 94% 이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학교 성적은 상위 248명 40%, 중위 297명 48.0%, 하위 74명 12.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상위 이상의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자본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85명 25.6%, 500만원 이상이 70명 21.1%, 300-400만원 미만인 68명 20.5%, 400-500만원 미만인 49명 14.8%, 100-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생활 만족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314명 52.1%, 만족이 289명 47.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재학중인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은 약 1:1 비율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절반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이므로 이점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표 4>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변수	하위변수	빈도	%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	352	55.8
		여	279	44.2
	연령	17세	167	26.5
		18세	254	40.2
		19세	210	33.3
	교육수준 (부)	초등학교	7	1.2
		중학교	22	3.7
		고등학교	178	30.2
		전문대	49	8.3
		대학교	272	46.2
		대학교이상	61	10.4

	교육수준 (모)	초등학교	8	1.4
		중학교	18	3.1
		고등학교	241	41.2
		전문대	52	8.9
		대학교	231	39.5
		대학교이상	35	6.0
	성적	상	248	40.0
		중	297	48.0
		하	74	12.0
	월평균 가구소득	100미만	16	4.8
		100-200 미만	44	13.3
		200-300 미만	85	25.6
		300-400 미만	68	20.5
		400-500 미만	49	14.8
		500 이상	70	21.1
	학교생활 만족	만족	289	47.9
		불만족	314	52.1

2. 청소년의 사회적자본 일반적 특성

1) 청소년의 결속적 사회적자본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결속적 사회적자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5>와 같다. 결속적 사회적자본을 살펴본 결과 신뢰는 평균 3.03, 표준편차는 1.04, 관계망은 평균 2.60, 표준편차는 1.04, 정보는 평균 3.31, 표준편차 1.08, 가족은 평균 3.28, 표준편차 1.12, 또래친구는 평균 2.58, 표준편차는 1.13, 교사는 평균 2.51, 표준편차 1.16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결속적 사회적자본에서 정보, 가족, 신뢰, 관계망, 또래친구,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필요한 결속적 사회적자본이 모두 평균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청소년의 결속적 사회적자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신뢰	1	5	3.03	1.04	628
관계망	1	5	2.60	1.04	627
정보	1	5	3.31	1.08	626
가족	1	5	3.28	1.12	626
또래친구	1	5	2.58	1.13	625
교사	1	5	2.51	1.16	625

2) 청소년의 교량적 사회적자본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교량적 사회적자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다. 청소년의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규모는 크다 206명, 32.9%, 작다 421명 67.1%, 평균 1.67, 표준편차 .470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5명 미만이 451명 71.8%, 5명 이상이 177명 28.2%, 평균 1.28, 표준편차 .4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교량적 사회적자본의 규모가 작고, 밀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6> 청소년의 교량적 사회적자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규모	크다	206	32.9	1.67	.470	627
	작다	421	67.1			
밀도	5 미만	451	71.8	1.28	.450	628
	5 이상	177	28.2			

3.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사회적자본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사회적자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사회적자본과 상관관계

	학교적응	신뢰	관계망	정보	가족	또래친구	교사	규모	밀도
학교적응	1								
신뢰	.350**	1							
관계망	.001**	.321**	1						
정보	.295**	.234**	.298**	1					
가족	.234**	.210*	.214	.135	1				
또래친구	.210*	.224**	.248**	.226**	.075	1			
교사	.201**	.256**	.301**	.311**	.279**	.288**	1		
규모	.304**	.211*	.178	.156	.187	.224*	.216*	1	
밀도	.765**	.250**	.237**	.212**	.244*	.232*	.211*	.204*	1

* P<0.05, ** P<0.01, *** P<0.001

사회적자본과 청소년의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의 선행 분석으로서 회귀모형의 독립성 검증과 다중공선성의 진단을 위해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결

속적 사회적자본과 교량적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속적 사회적자본과 교량적 사회적자본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표준화 회귀모형에서 분산팽창인수(VIF) 값이 모두 1에 가까워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결속적 사회적자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결속적 사회적자본이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결속적 사회적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결속적 사회적자본 중 신뢰(.000***), 관계망(.006**), 가족(.001***), 또래친구(.000***), 교사(.001***)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결속적 사회적자본

변수	학교적응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와일드	자유도	유의수준	비표준화계수 EXP(B)
신뢰	.277	.043	14.323	1	.000	1.221
관계망	.124	.057	.342	1	.006	1.051
정보	-.076	.037	.197	1	.176	.058
가족	.186	.048	12.436	1	.001	1.225
또래친구	.950	.801	21.285	1	.000	1.076
교사	.047	.078	17.326	1	.001	1.231
상수	-1.254	.833	14.242	1	.000	.026

* P<0.05, ** P<0.01, *** P<0.001

신뢰가 1 증가 할 때 Exp(B)가 1.221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칠 오즈가 22.1%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망이 1 증가 할 때 Exp(B)가 1.051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칠 오즈가 5.1%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가 1 증가 할 때 Exp(B)가 1.225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칠 오즈가 22.5%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친구가 1 증가 할 때 Exp(B)가 1.076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칠 오즈가 7.6%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가 1 증가 할 때 Exp(B)가 1.231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칠 오즈가 23.1%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결속적 사회적자본을 강화한다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유의미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교량적 사회적자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교량적 사회적자본이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교량적 사회적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량적 사회적자본 중 규모(.000***), 밀도(.001***)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1단위 증가할 때 Exp(B)는 1.147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오즈가 14.7% 증가하고, 밀도가 1단위 증가할 때 Exp(B)는 1.215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오즈가 2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량적 사회적자본이 강화될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량적 사회적자본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표 9>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교량적 사회적자본

변수	학교적응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와일드	자유도	유의수준	비표준화계수 EXP(B)
규모	.652	.077	11.253	1	.000	1.147
밀도	.322	.065	9.246	1	.001	1.215
상수	2.425	.247	10.254	1	.000	.086

* P<0.05, ** P<0.01, ***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속적 사회적자본과 교량적 사회적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주요하게 작용하는 사회적자본 요인들의 강화를 위한 이론적 함의를 제언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결속적 사회적자본 요인 6개 중 5개가 유의하였고, 교량적 사회적자본 요인 2개 중 2개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속적 사회적자본에서는 신뢰, 관계망, 가족, 또래 친구, 교사 요인에서 유의하였고, 신뢰가 1증가할 때 학교적응 오즈가 22.1% 증가하였고, 관계망이 1증가할 때 학교적응에 미치는 오즈가 5.1% 증가했으며, 가족관계가 1증가할 때 학교적응에 미치는 오즈가 22.5% 증가하였다. 또래친구와의 관계가 1증가할 때 학교적응에 미치는 오즈가 7.6% 증가하였고, 교사와의 관계가 1증가할 때 학교적응에 미치는 오즈가 23.1% 증가하였다. 이는 유창민(2018)의 연구에서도 결속형 사회적자본의 변화과정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에 따른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 반면 정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량적 사회적자본에서는 규모, 밀도 모두가 유의하였고, 규모가 1단위 증가할 때 학교적응에 미치는 오즈가 14.7% 증가하였고, 밀도가 1단위 증가할 때 학교적응에 미치는 오즈가 21.5% 증가하였다. 연구결과 결속적 사회적자본은 타인과의 관계성을 통해 학교적응력이 증가하였고, 교량적 사회적자본은 청소년이 보유한 자원의 규모(size)와 밀도(density)의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Coleman(1995)과 Granovetter(1995)도 교량적 사회적자본인 규모와 밀도의 증가와 크기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과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침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위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몇가지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의 결속적 사회적자본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적응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 예방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타인과의 관계 정도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속적 사회적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적응 평가 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속적 사회적자본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학교적응 지표는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의 교량적 사회적자본인 규모와 밀도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매뉴얼은 아직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량적 사회적자본을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의 제작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회적자본을 중심으로만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을 뿐, 팬데믹 이후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넓은 의미로의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필요한 요인을 살펴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후속의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로서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그들의 문화적, 환경적, 교육 체계적인 문제점으로 확대하여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까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인경·김춘경(2016). 청소년의 또래 애착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교육심리연구**, 30(2), 124-146.
- 김갑순·김승옥(2023).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전문성 인식이 유아코딩교육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0(1), 5-24.
- 김민석·장은지(2022).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33(3), 55-76.
- 김영미(2008). 부정적 부모생활사건과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 사회자본, 부적응 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4), 1-22.
- 김주연(2017). 한국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과 인지기능. **한국인구학회**, 40(4), 1-24.
- 박지혜(2023). 유아교사의 코칭역량과 전문성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0(1), 47-67.
- 서지원(2006).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 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1-14.
- 유창민(2018).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자본 형성 변화 과정 :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각영역별 결속형 사회적자본 변화 궤적과 예측요인 탐색. **보건사회연구**, 38(1), 56-95.
- 이가영·김신영(2009). 청소년의 사회연결망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2(2), 21-45.
- 이지현·한경혜(2012). 예비 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2), 170-205.
- 이정규(2000). 노동자-직업 연결 방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고용보험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학**. 2002년 가을호, 24-46.
- 임 걸(202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9(1), 231-239.
- 장은지·김민석(2022). 사회적연결망의 다양성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청소년연구**, 33(3), 55-76.
- 장은지·최재성(2021). 사회적연결망의 다양성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비빈 곤학생과 빈곤학생의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23(3), 149-174.
- 통계청(202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
- 홍혜정(2023). 유아교사의 놀이신념이 다문화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0(1), 25-36.
- Berkman, L. F., Kawachi, I., & Glymour, M. M.(2014). *Social Epidemiology 2nd edition*. Oxford press. 69(1), 224-240.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Westport, CT: Greenwood.

- Catalano, R. F., Berglund, M. I., Ryan, J. A., Lonczak, H. S., & Hawkins, J. D.(2004).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98-124.
- Coleman, J, S.(1995).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 95-120. doi:10.1086/228943.
- Granovetter, M. S.(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2n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lliwell, J, F, K., & Putnam, R. D. K.(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 359, 1435-1446.
- Holland, J., Reynolds, T., & Weller, S.(2007). Transitions networks and communities the significance of social capital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Studies*. 10(1), 99-116.
- Putnam, R.(1995).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Putnam, R.(2000). Bowling alone: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York: Simon Schuster.
- Tisencorps, T., Lace, I., & Mierina, I.(2008). Social Capital. In J. D. vander ploeg & T. Marsdem (Eds.). *Unfolding Webs. the Dynamics of Rigional Rural Development*. 87-110.
- Yoo, c.(2018).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bonding social capital. risk and protective roles of 'bonding social capital and academic stress'. according to specific situation in south korea adolescents. *Child indicators research*. 11(1), 245-261.
- WHO(2020). Herd Immunity After 2020.
- Woolcock, M, & Narayan, e(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49.

Abstract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Lim, Gu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school adaptation of youth who have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and to study alternatives. Targeting youth currently attending high school, 631 cases were analyzed using SPSS 28.0 through direct interviews and structured surveys over a three-week period from November 5 to November 24, 2023.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nding social capital includes trust, network, family, peers, and teachers. Factors were significant, and for bridging social capital, both size and density were significant. Bonding social capital has a high ability to adapt to school through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bridging social capital has a close impact on school adaptation depending on the size and density of resources possessed by youth. A few suggestions are based on the above results. First, a capacity-building program should be operated to strengthen bonding social capital centered on relationships, and opportunities to strengthen social capital should be provided by utilizing club activ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ators that can verify the degree of relationship necessary for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anual that can effectively screen and select the size and density of youth's bridging social capital.

Keywords : pandemic, youth, bonding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school adaptation

* Songwon University Social Service Convergence Professor